

#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과 사제관 디자인 변형에 대한 조사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Change and of the Anglican Church & Rectory in Onsuri, Ganghwa Island

최정신\* / Choi, Jung-Shin  
한주희\*\* / Hahn, Joo-Hee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cases of change in the Anglican Church including its rectory in Onsuri, Ganghwa island, which was built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tyle. The materials used for the study were published books, old photos taken before the change, drawings, and field survey.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1) Painting concealed natural wooden grain should be removed as well as carpet on the wooden floor. The way of ceiling finishing is to be restored as traditional way. 2) Refer to the rectory, it needs to be restored totally, since it has been changed many times through partial renovation. It lacks unification of design in entire elevation, windows and door. The practical spaces such as indoor flush toilet and boiler room are desirable not to be revealed or designed in harmony with other spaces. 3) Stript flooring in the rectory are to be restored to frame flooring, room finishing including vinyl flooring, vinyl wall paper and moulding along the cornice to the traditional paper finish. Lattice patterns of windows and doors are recommended to be restor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esign.

키워드 :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변형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조가구인 전통건축은 한 세기를 넘기기 전에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파손, 파괴되어 후에 중건, 수리되기도 하며 편리한 기능을 위해 개수, 개조된 사실들이 많았다.<sup>1)</sup> 따라서 전통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은 보호측면뿐 아니라 건축사적 연구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에 있어서 복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는 건립당시의 시대성, 문화성, 지역성, 가치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문화적 산물로서 올바른 개수, 개조 상태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연구가치가 있다.

성공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과 국가,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신앙을 인정한다는 점이고, 이는 한국 선교초기 토착적 형태의 건축양식인 한옥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성공회 교회는 토착 문화화의 의지가 강했으며, 성공회 한옥성당은 전통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성당건축이다.

본 논문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몇 안 되는 근대기 성공회 한옥성당 중의 하나로서, 초기 토착화 정신을 이어 받은 강화 온수리 성당과 전통한옥 형태로 지어진 사제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목조의 전통건축물은 소멸과 훼손의 위험이 크며 이후 복원의 어려움이 있는데, 온수리 성당과 사제관도 또한 많은 변화와 개수, 개조를 거친 현 상태를 바탕으로 건축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많은 문제와 한계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건축물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잘못 복원된 부분과 변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앞으로의 현 건축물 복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PhD.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주거학전공 박사수로

1)곽동화, 인동향교의 복원연구에 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1988, p.3.  
2)최영기의, 강화지역 성공회 교회건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10. p.538.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대한성공회의 역사와 한국 성공회 교회건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대상 성당건축과 사제관을 살펴보았다. 요소별 분석은 배치 및 평면, 구조 및 외장, 내부공간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의미를 밝힌 뒤, 결론에서 잘못 복원된 부분과 변형 사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건축이 실용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수리와 개조를 통하여 최초 설계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온수리 성당 역시 건립당시 설계서라든가 그 후의 개수때의 시방서 등은 거의 없어진 상태(사제관의 경우는 2000년 보수공사를 한 상태로 변경 설계도가 존재하였다)이므로, 건물의 완벽한 원형추구는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형태분석을 위해서는 각종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근거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동일영역이나 동일건물 내에서 양식, 재료, 부재, 형상의 변형을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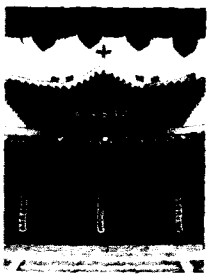
## 2. 대한 성공회 건축의 기본적 고찰

### 2.1. 대한 성공회의 역사와 성당건축

성공회는 가톨릭이나 장로교 등의 개신교보다는 다소 늦게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영국의 국교로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90년이었다. 188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 영국 성공회는 1880년대 말에 이르러 에드워드 벤슨(1829-1896)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코르프(한국 이름: 고요한, 1843-1921)주교에게 맡겼다. 1890년 9월, 제물포항구에 도착한 코르프 주교는 의사이며 선교사인 랜디스(1865-1898)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병원을 세우고 성당을 세우면서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을 시작했다.<sup>3)</sup>

한국 성공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전기(1891-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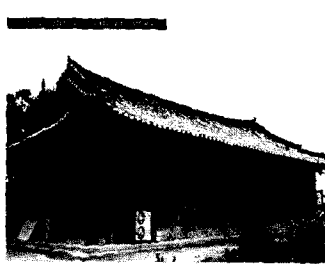
<그림 1> 강화읍 성당

이 시기는 최초로 한국에 성공회가 들어와 성당이 건축되고, 교회의 조직과 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이다. 1892년 서울 정동에 대지가 마련되어 한옥양식의 장림 성당이 건축되고, 1893년부터 대한성공회는 강화읍에 성당을 건축, 축성(祝聖)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00년에 지어진 본격적인 성당건축인 강화성당은 바실리카 양식을 한국화하고 동시에 불교의

가람배치 구성을 수용하는 등, 그리스도교 문화의 토착화를 훌륭히 이룩한 사례로 이후 한옥성당의 모범이 되었다.<sup>4)</sup> 이 시기에 지어진 모든 성공회 성당이 한옥의 외관에 바실리카식 구성을 하고 있으며 온수리 성당(1906)도 이에 해당된다.

#### (2) 일제 강점기 후기와 격동기(1931-1965)



<그림 2> 청주 성공회 성당(1935)

이 시기는 일제시대 후기의 교회수난기와 전후 교회의 재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성공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복음화의 결실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성당 역시 대부분 한옥 형태로 지어졌으나, 간혹 일본식의 절층 형태, 근대적 성당 형태도 나타나게 된다.

#### (3) 한국 성공회의 발전기(1965-2002)



<그림 3> 성남 교회(1978)

이 시기는 최초로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고 한국 내 3개의 교구가 분할되어 발전해 가는 시기이며, 성공회의 한국선교 100년이 되는 시기이다. 1965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성당건축의 유형이 나타나 더 이상 바실리카식 공간구성이 성당건축의 규범이 되지 못하고, 한옥성당도 보이지 않는다. 기하학적인 형태, 중심형 공간구성 등 근대적 성당건축이 주류를 이룬다.<sup>5)</sup>

## 2.2. 성공회 한옥성당

우리나라에 가톨릭의 수용 이후 성당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당시 교회가 원했던 것은 첫째,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회의 장(기능) 둘째, '구원의 통로'라는 그리스도교의 주제에 대응한 공간구조(의미), 셋째, 본질화와 통일성에 의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이념 구현(공간성), 넷째, 기술적, 경제적 여건 하에서 가능한 건축형식(경제성), 다섯째, 일반 민중에게 저항감을 주지 않고 전통문화에 상충되지 않는 건축형태(외관), 여섯째 오랜 박해 끝에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교회가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알리고 하느님 승리를 증거하기 위한 선포(kerygma) 등이었다.<sup>6)</sup> 이에 따라 성공회 성당건축의 구조와 외관이 한국 전통 목조건축양식인 한옥교회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4)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 건축에 대한 실측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2, p.65.

5)김정신, 앞의 책, p.66.

6)송철의, 한국성공회 성당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3, p.95.

3)인천광역시, 인천 역사의 자람, 2001, pp.172-173.

<표 1> 한국 성공회 성당건축의 종합유형 분포7) ( )안은 %

연도	중층 삼랑식 한옥성당	단층 삼랑식 한옥성당	중세 서양식 성당	근대적 성당		계
				집중형	장축형	
1890-1900	1					1
1901-1910		1				1
1911-1920		1				1
1921-1930		2	2			4
1931-1940		2				2
1941-1950						
1951-1960		1	1		1	3
1961-1970				1	1	2
1971-1980				1	7	8
1981-1990				1	9	10
1991-2002					12	12
계	1(2)	7(16)	3(7)	3(7)	30(68)	44(100)

성공회 한옥성당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교 초기부터 교회건축에 깊이 관여한 트롤로프 신부의 토착화 의지와 건축에 대한 높은 안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한국의 문화, 예술, 한국건축양식과 재료, 기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융화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성당건축을 추구하였다.

2)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회적 신분, 남녀노소 등의 구별이 없는 생활공동체로서 많은 회중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내부공간이 필요했다. 한국전통목조건축은 주랑(柱梁)구조에 의한 가구식으로 전후방향으로는 1칸(間)씩 밖에는 확장이 불가능하나 도리방향으로는 구조적으로 무한히 확장 가능하므로 도리방향의 횡축과 보 방향의 종축을 바꿈으로써 넓은 실내공간의 확보가 가능했다.

3) 횡축과 종축을 바꾼 장방형 평면의 종축 끝에 제단을 놓고, 반대쪽에 입구를 둬으로써 건물을 들어서면 상당한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되고, 반복된 열주와 보에 의한 투시효과는 '구원의 통로'라는 길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교의 주제와 결합할 수 있었다.

4)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단위공간인 칸(間)은 중세 서양 교회건축의 베이(bay)와 유사하며, 2고주 7랑 가 구조에 의한 어간과 퇴간은 바실리카식 교회의 주랑(nave)과 측랑(aisle)에 정확히 대응한다.

5) 당시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였고, 내부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외관은 검소한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였다.<sup>8)</sup>

<표 2> 성공회 한옥성당의 건립 통계표(북한지역은 제외)<sup>9)</sup> ( )안의 숫자는 누계임

시기 구분		교회 설립수	성당 건축수	한옥 성당수
개회기와 일제시대 전기	개척기 1890-1910	25(25)	4(4)	3(3)
	정착기 1911-1930	7(32)	7(11)	6(9)
일제시대 후기와 격동기	수난기 1931-1954	11(43)	8(19)	7(16)
	재건기 1955-1964	7(50)	21(40)	3(19)
한국 성공회의 발전기	1965-2002	56(106)	32(7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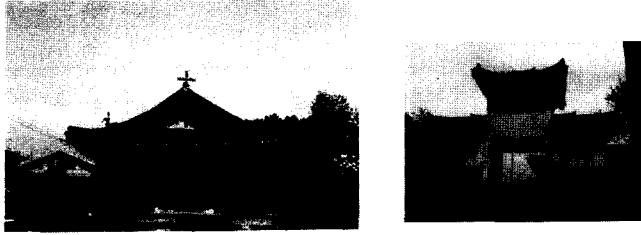
### 3. 온수리 성공회 성당

#### 3.1. 온수리 성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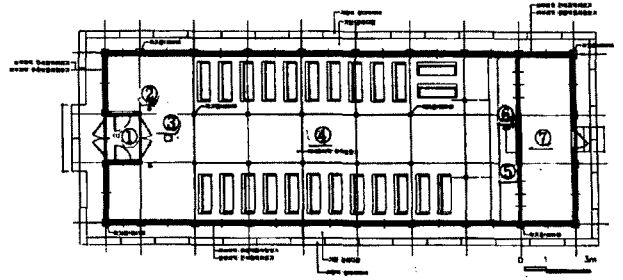
성공회가 강화도에 선교를 시작한 것은 189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너(한국명 : 왕란도)신부는 강화읍 갑곶이에서 소외된 고아들과 거지들을 양육하면서 교리와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강화 선교의 뿌리가 시작되고, 이후에 강화도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1896년 워너 신부가 중병으로 귀국하자, 마가 트롤로프 신부(한국명 : 조마가)와 힐라리 신부(한국명 : 길강준), 평신도 로스(한국명 : 노인산) 등이 강화도에 파송되었고, 1897년에 외과의사이며 선교사인 로스가 온수리에 약국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1898년에 우선적으로 의료사업의 하나로 '난저골(卵子谷)'이라고 불리던 길상면 온수리에 집한 채를 구입하여 진료소와 기도처를 세워 의료선교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하였다.<sup>10)</sup> 로스의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온수리 교민들 사이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당을 건축하려는 의욕이 퍼져나갔다. 따라서 선교 초기 강화도 북부는 1893년 강화 갑곶이를 중심으로, 강화도 남부는 1898년 온수리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강화도 북부와 남부의 중심지인 강화읍 교회와 온수리 교회는 모두 토착화를 지향하는 한옥양식으로 지어졌다. 강화읍 교회는 선교 본부인 영국교회의 지원 하에 1900년에 건축되었지만, 온수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성직자나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 객체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강조되어 주민들이 스스로 땅을 기증하고, 특별헌금을 내어 1906년에 27칸의 성당에 기와를 얹은 전통한옥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온수리 성당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시작에서 축성까지 평신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한국 성공회 최초의 성당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지금의 성당은 1997년 7월14일에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15호로 지정되었다.

7)송철의, 앞의 책, p.95참조.  
대한성공회약사, 2003년도 성서정과, 대한성공회 출판부, 2002, pp.109-111 참조.  
8)김정신, 앞의 책, p.73.

9)김정신, 앞의 책, p.66참조.  
대한성공회약사, 대한성공회출판부, 2002, pp.109-111참조.  
10)석광훈, 온수리 성공회, 대한성공회 온수리 교회, 2002, pp.10-11.



<그림 4> 온수리 성당과 종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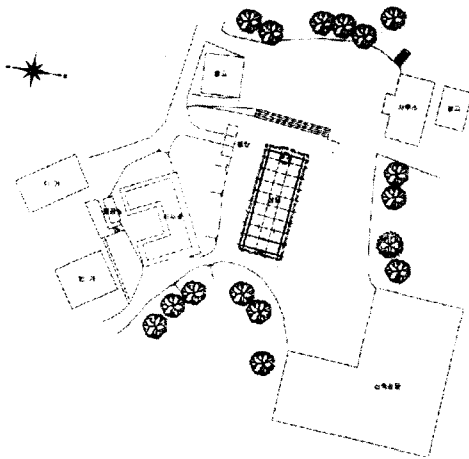


① 전실 ② 성수대 ③ 세례대 ④ 예배당 ⑤ 제단 ⑥ 제대 ⑦ 사제대기실

<그림 6> 온수리 성당 평면도

### 3.2. 배치 및 평면

온수리 성당은 남서쪽으로는 정족산(鼎足山)이, 동남쪽으로는 초지 들판과 바다로 흐르는 물줄기와 서해바다가 보이는 언덕 자락에 위치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잡기를 하고 있다. 마을로부터 진입되는 남측 입구에는 2층의 누각식(樓閣式) 외삼문을 두었는데, 이 문이 종각을 겸하고 있다. 외삼문과 직교하여 성당이 배치되며, 성당은 서쪽에 정면 출입구를, 동쪽에 제단을 둔 단층 한옥 건축이다. 또한 성당의 오른편 아래쪽에는 성당과 조화를 이루며 서 있는 전통 한옥의 사제관이 있다. 두 건물의 배치는 거의 독립적인 배치로서 사제관이나 부속건물들이 격리되어 있어, 건물간의 연결이나 건물군으로서의 배치의지는 희박한 편이다. 온수리 성당은 이 곳 교인의 집 뒷산에서 베어 온 소나무와 이 곳의 흙으로 구운 기와를, 교인들이 손수 올려서 지은 집으로 매우 소박하고 순수한 토착미를 느끼게 한다. 성당의 외모는 팔작지붕 홑 처마로 정면 가로폭이 3칸, 측면 세로폭이 9칸, 합이 27칸인 길쭉한 장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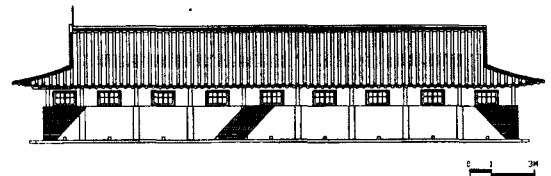


<그림 5> 온수리 성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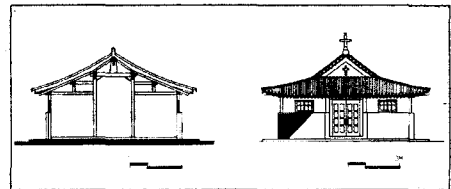
삼랑식(三廊式) 평면이다. 성당은 바실리카식 평면을 전통건축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통로로서의 측랑(aisle)은 없고 평면 형태로서만의 측랑 영역이 주어졌다.

### 3.3. 구조 및 의장

구조는 전통적 목구조 7량가 형식으로 내부는 단층이며 하나로 트인 통간(通間)이다. 외벽을 보면 벽의 상부는 기둥이 보이도록 회반죽 마감을 하고 하부는 적벽돌로 기둥까지 돌출되게 쌓아져 있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으로, 건물 전체 가구는 구조가 약식화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지붕 용마루 양끝 아래기(망와) 부분의 십자기와 합각면에 벽돌로 새긴 십자가 무늬 장식을 제외하면 향교나 옛날 관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 형태를 지니고 있다. 지붕에 공포(栱包)장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단청도 칠하지 않았으며, 들보나 서까래에도 아무런 장식이 없다. 성당 내부 바닥은 마루가 깔려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카페트가 깔려있다. 천장은 구조부재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이나 지성소의 천장은 구조와 상관없이 우물만 자처럼 약식으로 틀을 만들고 회벽을 발랐는데, 이는 지성소의 공간적 위계를 목적으로 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림 7> 온수리 성당 측면도





<그림 8> 온수리 성당 가구도와 정면도


### 3.4. 내부공간

성당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서 전실(narthex), 회중석(nave), 통로(aisle), sanctuary(지성소), 제단(altar), 제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칸의 길이가 다른 칸보다 작은 첫 칸의 정면 중앙 출입구가 포치(porch)로 사용되며 배랑구성은 없다. 정면의 쌍여단이 문을 열고 들어가 포치의 좌우 양측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한옥 성당이면서도 정면이나 전실의 처리는 서양식 교회건축에 가깝고, 내부공간의 단변 : 장변의 비는 1:2.5(주랑만은 1:10)의 길고 깊숙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전 후 반칸은 전실과 제의실이고, 12사도들을 상징하는 2열의 12개 기둥으로 주랑과 측랑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중앙 주랑이 양 측랑보다 오히려 폭이 작은 6:7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중앙주랑이 양 측랑보다 폭이 작은 이유<sup>11)</sup>는 첫째, 지역유지들(유교적 색채가 짙은 한학자들)과 교인들에 의해 지어진 성당은 창립시에는 주랑 양측으로 남녀가 구분(중앙에는 휘장을 칩)하여 앉아, 제단 중앙에서는 남녀를 보면서 설교 혹은 성경 낭독을 하여야 했다. 둘째, 옛 사진자료에 의하면 출입구 중앙의 성천대와 제대는 일직선상에 있으며, 또한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은 장축성의 강조효과를 배가시켜 '구원의 길'이라는 통로적 개념을 적극 표현하고자 했다. 해방 전까지는 남녀석을 구분해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랑의 중심통로를 제외하고 의자를 놓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후진(apse)이나 고창(高窓)같은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은 생략되어 있다. 제단은 중앙 뒷벽에 붙어 있고, 전체면적의 1/6정도를 차지하며, 감실은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중앙 제대 위에 설치된다. 마지막 9번째 칸은 제의실로 쓰이며 중앙에 외부로 출입문이 나 있다. 천장은 가구가 노출되어있고, 내벽은 회반죽 마감이다. 가운데 가로 들보들과 기둥 모서리마다 당초문(唐草紋)이 새겨진 나무 조각판들을 부착하였으며 주랑(nave) 위의 중인방 들보는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굵은 나무들을 들어 올려 소박한 멋을 볼 수 있다. 제단은 동양전통의 3단으로 꾸며졌는데 초기 성당의 목조제대는 한자 성(聖)자셋을 새겨 넣어 지성소임을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돌 제대를 설치하여 교회력에 따른 예전 색깔대로 비단을 제대에 덮어 늘어뜨린 모양으로 장식하고 있다.

### 3.5. 변형된 부분

	
<p>옛 성당의 사진을 보면 정면에 출입구가 2개 있는 것이 보이나 현재는 1개의 출입구로 변형되어 있어 원래의 출입구 형태로 복원이 필요하다.</p>	<p>성당 내부의 옛 모습으로 제의실문과 문의 창살형태를 자세히 볼 수 있다. 변형된 제의실 내부의 복원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p>

	
<p>성당 입구에서 있는 종탑의 옛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변형된 현재의 종탑 복원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p>	<p>현재 제의실의 천장과 합판문은 고증에 의해 복원되어야 한다.</p>
	
<p>성당내부의 현재 모습으로 기둥과 서까래, 보 등에는 붉은색도료로 마감되어 있는데, 도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천정의 조명등도 노출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의 붉은 카펫은 기록사진에 의해 나무바닥 마감으로 교체해야 한다.</p>	<p>성당 앞에서 찍은 옛 결혼 사진 모습으로, 성당의 벽면이 막돌 허방벽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성당의 적벽돌 벽은 교체되어야 한다.</p>

## 4.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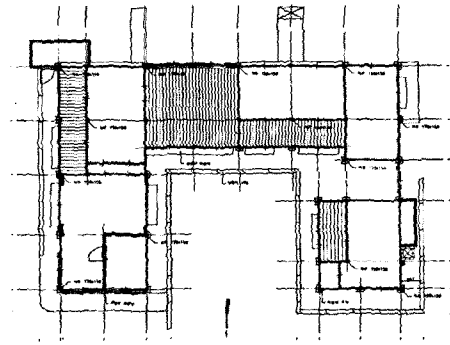
사제관은 선교를 담당하는 성직자의 거처로서 성당과 거의 동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33년 원형 그대로 중수(重修)하였다고 한다. 사제관의 가치는 선교 초기 영국인 성공회 신부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거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는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식의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전통건축과의 절충적인 경향으로 주택을 건축한 점과는 다르다. 영국인 성공회 신부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로의 토착화를 지향하는 선교정책을 펼쳤고 그것의 단적인 증거가 성공회 성당과 사제관이다.

사제관이 전통적인 주택의 형태를 갖고는 있지만, 건축수법이나 치목(治水) 형식에서 완전한 한국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아마도 주택의 건축과정에서 영국인들의 주문이 주택을 짓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노후로 인하여 2000년에 보수 공사가 있었으나 제대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보존을 위한 재 보수 작업이 요구된다. 사제관은 최근엔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2년 2월 4일 인천시 유형문화재 41호로 지정되었다.

11)강화 온수리 성공회 석광훈 신부의 자문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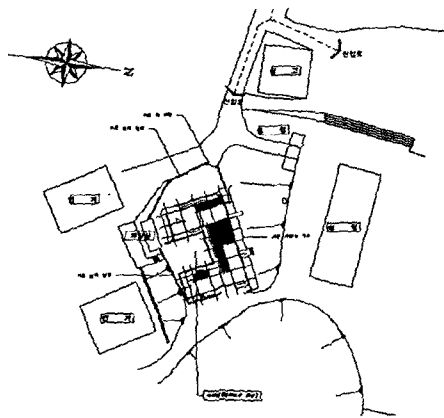
<그림 9> 사제관 전경



<그림 11> 사제관 평면도

#### 4.1. 배치 및 평면

정족산 북쪽에 위치한 온수리 성당과 사제관 건물의 배치는 '상의 공간'인 성당과 '하의 공간'인 사제관이 분화된 개념으로 배치되어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당과는 남북 일직선상의 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一자형의 대문과 ㄷ자형의 안채 공간이 중(縱)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평면형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sup>12)</sup> 사제관은 ㄷ자형 평면의 한옥건물로서 안채로 들어서면 마당을 가운데 두고 대청마루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왼쪽으로부터 부엌, 사제방(안방), 대청, 작은방, 건넌방 순으로 배열되었고, 사제관에서 본당으로 통할 수 있는 협문 1칸이 설치되어 있으며 협문 우측으로는 사랑방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10> 사제관 배치도

#### 4.2. 구조 및 의장

사제관은 정면 7칸, 우측면 5칸, 좌측면 4칸, 배면 7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 29.19평의 규모이다. 구조는 목구조이며 5량가로 기단은 화강석 1단 쌓은 기단 위에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은 각주를 사용하였다. 가구(架構)는 대량(보)위에 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는 간결한 구조로서, 보 밑은 마구리를 직절(直切)한 보아지를 받쳤다. 처마도리, 중도리, 중도리는 납도리로 구성되었고 보는 보목을 가늘게하여 기둥 위의 화통가지에 걸구시키고 기둥 밖으로 보 머리를 내밀게 하였다.

벽체는 심벽 구조의 회반죽 마감벽이며, 마루 구조는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의 형태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서까래의 형상은 하단부를 조금 후리고 마구리는 거의 직절에 가깝게 사절(斜切)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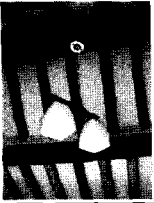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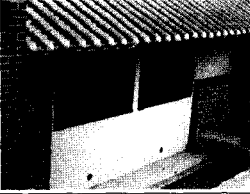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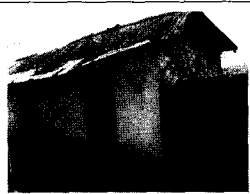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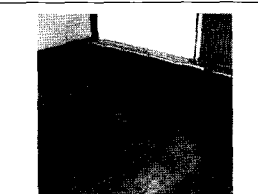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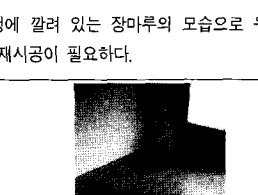
처마는 부연 없는 홀 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건물 지붕 내 귀퉁이에 모두 합각(合關)을 없었으며 지붕의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를 5단 또는 3단으로 쌓았으며 내림마루는 부고없이 착고 위에 적새를 3단 쌓고 솟기왓을 얹어 놓았다. 지붕마루의 와곡(瓦曲)은 완만하며 양단부에는 땅와를 얹고 지붕의 기와잇기는 암, 솟막새 없이 연합 위에 암기와를놓고 그 위에 솟기와를 얹어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대문, 담장, 굴뚝은 최근에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4.3. 내부공간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의 안방전면 왼쪽으로는 반칸의 툇마루가 달린 마루방이 있으며 안방 오른쪽은 대청으로 이어진다. 안방은 1×2칸의 규모이며, 안방의 아래쪽에는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위치한다. 안방의 부엌 쪽 벽면에는 4짝 미세기문이 있는데, 이는 아마 집객을 위한 서빙(serving) 용도 및 동선 단축을 위해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사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 부엌 살림은 볼 수 없으며,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타일 마감을 하고 세면대, 양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안방에서 대청으로 난 문은 3짝 불발기 문이고 대청 바닥은 장마루가 깔려 있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으로 서까래가 모두 드러나며 그 사이 공간은 회벽으로 발라 마감하였다. 대청의 전면에는 문을 달아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의 오른쪽에는 1×2칸의 규모의 작은방과 건넌방이 연이어 있으며, 건넌방 아래쪽으로 성당으로 가는 협문과 사랑방이 위치한다. 사랑방은 1칸반×1칸반(1×반칸의 툇마루 포함)의 작은 방이다.

12)석광훈,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보고서, 미간행, p.3.

#### 4.4. 변형된 부분

	
<p>천장에 달려있는 등의 형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재시공이 요구된다.</p>	<p>새로 시공된 굴뚝과 보일러실 지붕의 모습으로, 보일러실의 지붕은 제거하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야 한다.</p>
	
<p>창의 외부모습으로, 전통창호의 형태와 모습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p>	<p>기존 시멘트 담장과 새로이 조성된 방화장의 모습으로, 매우 이질감을 준다. 방화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p>
	
<p>외부 화장실과 창고는 전혀 전통주택에 어울리지 않는다. 철거 혹은 고층에 의한 복원이 필요하다.</p>	<p>내부에 설치된 각기 다른 형태의 창 의 모습으로 복원자료에 의한 형태의 통일이 필요하다</p>
	
<p>시멘트로 덧시공한 대청아랫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시멘트는 제거 되어야 한다.</p>	<p>사제관 앞에서 찍은 결혼 기념사진으로, 대청 앞 창 의 형태를 볼 수 있어 창 의 복원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p>
	
<p>안방옆에 설치된 보일러실의 모습으로, 사제관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제거 혹은 위치변경등의 조치가 필요하다.</p>	<p>대청에 깔려 있는 장마루의 모습으로 우물마루 재시공이 필요하다.</p>
	
<p>현재 사제관 방들 내부는 현대식 비닐벽지와 기성물딩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물딩제거와 종이벽지로의 재시공이 필요하다.</p>	<p>사제관의 방바닥에 시공되어 있는 비닐 장판의 모습으로, 전통 종이장판지 바닥의 재시공이 요구된다.</p>

#### 5. 결론

본 조사에서 살펴본 결과 배치 및 평면, 구조 및 의장, 내부 공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형의 원인을 살펴보면, 계속된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이 사용당시와 맞지 않아 변형된 경우와 관리상의 문제, 보수·복원 기술상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변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당

① 전통건축이 위치한 주변환경은 대상건축물의 보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우선 성당 주변경관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지정 기준을 목조 및 석조 건축물의 경우 각 추녀 끝이나 건물의 최고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당는 각 기점을 연결하는 거리가 20m-100m 이내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당 보호구역 안에는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주택이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주택, 마을 창고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② 건축물의 성격은 외관의 형상과 부재의 재료, 가공방식, 구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 및 의장의 변형은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된다. 성당 외관의 옛 사진을 살펴보면 정문의 위치와 형태가 현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 의하면 출입구가 좌, 우 2개인 것을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중앙에 1개의 출입구만 있다. 이는 고층자료에 의해 복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성당 외벽의 적벽돌 마감은 사진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돌 화방벽으로 재시공되어야 하며 성당 입구에서 있는 종탑도 고층에 의해 복원되어야 한다.

③ 전통건축물의 큰 특징은 천연부재의 노출이라 할 수 있는데, 성당의 경우처럼 기둥과 서까래, 반자 등의 목재에 입힌 도료, 마루바닥 위에 깔린 저급의 카펫 사용은 내부 공간에 있어 가장 큰 변형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도료와 카펫 모두 제거하여 천연부재의 자연색과 나무결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의실의 합판 천장과 제의실 내, 외부의 출입문, 성당 창호 등은 철거한 고층에 의해 천장의 형태와 문, 창호로 복원되어야 한다.

##### 2. 사제관

① 전통가옥 문화재의 경우는 그 일괄이 담으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제관의 경우처럼 개수전의 시멘트담장과 개수후의 방화장이 혼용되어 있어 사제관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 이는 방화장으로 통일하여 담장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수과정에서 전문가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보수로 인한 형태적 변형과 그로 인한 문화적 가치의 변질은 심각하다.<sup>13)</sup>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로 인하여 사제관은 전체 외관과 외벽, 창호 등에 통일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복원과 수정이 요구된다.

난방용 보일러실의 노출은 외관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므로 제거 혹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져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화장실과 창고도 철거하거나 고증자료에 따른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청 기단 부위의 일반시멘트 덧 시공은 제거되어야 한다.

③ 내부공간의 규모와 형상, 설비는 공간적 성격을 표현하며 이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공간의 쓰임새를 반영함으로써 당시의 생활양식을 유추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사제관의 내부공간은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내부구조의 변형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통주택에서의 대청 바닥은 우물마루가 대부분이나, 사제관의 경우에는 광이나 다락 바닥에 사용하는 장마루 형태의 바닥이다. 따라서 대청의 장마루는 우물마루로 재시공이 요구된다. 또한 안방을 비롯한 방의 내부마감은 비닐장판 바닥, 비닐 벽지, 천장 몰딩 등을 사용하여 전혀 전통주택 내부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들 방의 장판지, 벽지, 몰딩 등은 모두 제거하고, 종이벽지, 종이장판지로 교체되어야 한다. 대청 및 방의 조명등도 전통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가 많고 노출되어 있어, 조명등의 교체 및 보이지 않도록 재설치 되어야 한다. 창호의 창살형태 또한 모두 제각각이어서 옛 사진의 기록과 전통주택 창호의 고증을 통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은 선교 초기 토착화의 의지를 나타낸 몇 안 되는 교회 중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고, 사제관 또한 비록 외국 선교사의 주택이었으나, 전통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전통건축물로서의 가치가 큰 건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용의 지속과 편의에 따른 변형이 불가피했던 점, 부족한 지식과 한정된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되어 오랜 동안 많은 부분의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산물로서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변형이나 훼손은 복원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경구, 충북지역 전통주거건축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 석사논문, 2001
2. 박동화, 인동향교의 복원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8
3. 김동식 외,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 현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김유리,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9

5. 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 건축에 대한 실측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 2
6. 김주삼,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책 세상, 2001
7. 석광훈,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보고서, 미간행
8. 석광훈, 온수리 성공회, 대한성공회 온수리 교회, 2002
9. 송철의, 한국성공회 성당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0. 심인옥, 개화기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논, 1992
11. 이재정, 대한 성공회 100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1990
12. 인천광역시, 인천 역사의 자랑, 2001
13. 조태환 외, 청주 성공회성당 건축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4.
14.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15. 최영기 외, 강화지역 성공회 교회건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0. 10
16. 대한성공회약사, 대한성공회출판부, 2002
17. <http://nanuse.com.ne.kr/sungnamchurch.jpg>-성남 교회
18. <http://100.naver.com>-청주 성공회 성당 모습
19. 성당 평면도, 예그린건축문화재연구소

<접수 : 2003. 10. 29>

13) 강영환, 지방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변형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1995. 6, p.23.